

## 주요 정책 이슈

- 2013.11.19,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-

### ① (특허 협력동향) 한·중·일 지식재산 웹사이트 트리포넷 공동 구축

- (주요 내용) 한·중·일 3국은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 웹사이트인 트리포넷(TRIPO: Trilateral IP Offices)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민간에 공개하기로 합의 (2013.11.14. 제1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)
  - 3국간 지식재산분야의 각종 협력활동을 소개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
  - 공개 항목에 각국 특허청의 신규성·진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비교연구보고서, 법령 비교대조표, 특허심사지침서,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링크모음 등이 포함
- (평가) 공공 정보자원의 개방 및 민간활용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.0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,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기대
  - 특히, 중국과 일본에 진출할 예정인 기업 및 국민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현지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\* 한·중·일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 출원건수는 전세계 출원건수의 41%, 디자인 출원은 78%를 차지하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

### ② (주요정책) 산업부,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발표

- (주요 내용) 생산과 건조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다각화,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, 대·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해양플랜트 산업\*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본격 육성
  - \* '30년까지 연평균 6.4%의 고성장 예상(세계시장전망, 역불: ('10) 1,452 → ('20) 3,275 → ('30) 5,039)
  - '17년까지 민·관 공동 9,000억원 투입,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
  - 향후 5년('13~'17)간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수요자 연계형 기자재 국산화,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자립화\*, 전략적 국제협력,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, 중소조선소 기술경쟁력 제고 등 5가지를 제시
  - \* 이를 위해, 580억원을 투자하여 부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예정('16년 완공목표)
- (평가 및 과제) 뛰어난 생산·건조 능력에 비해 부족한 설계능력과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되며, 중국의 추격을 고려하여 제시된 정책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
  - 최근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('12년 18.3% → '13년(1~8월) 30.8%)하여, 한국의 증가폭(30.5% → 39.5%)을 상회
  - 기자재 국산화율은 20% 초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어 수주액의 상당부분이 다시 국외로 유출 (서울경제)

< 참고 > 세일가스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논란

## 셰일가스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논란

### - “From sunset to new dawn” (’11.16, The Economist) 요약 -

#### □ 최근 셰일가스의 경제성 및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
- 쉘사의 북미 셰일가스층에 대한 투자(240억불)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십여개 관련 중소 업체들의 CEO가 교체
  - 이러한 기업들의 실패는 시장진입이 늦은 탓이라는 견해도 존재
- 일부 전문가들은 셰일가스의 시장가격(4불/Million British Thermal Unit)이 생산비용(6불)보다 낮아서 함께 채굴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액화물(NGLS, Natural Gas LiquidS)의 채산성이 담보되어야 셰일가스 채굴도 가능하다는 견해
- 골드만 삭스에서는 셰일가스의 미국 경기부양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

#### □ 그러나, 여전히 셰일가스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

-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셰일가스 가격을 전제로 맥킨지는 '20년까지 3,800억불~6,900억불 규모의 GDP 증대효과와 17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예상
- 경기부양효과는 에너지 산업에서 먼저 발생하여 관련 인프라 산업을 거쳐 화학산업, 철강 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
  - \* '15년경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있어서 미국기업은 기타 선진국 기업에 비해 5~25%의 가격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얻을 전망
- 에너지 수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

#### □ (참고) '13년 미국은 가스, 석유를 합한 에너지자원의 세계 최대 생산자가 될 전망

- 가스('05년 대비 33%)와 석유('08년 대비 30%) 생산량의 확대 전망
  - 이는 수압파쇄법\*(Hydraulic fracking)이 미국에서 개발되어 셰일가스\*\*층에 대한 시추가 늘었기 때문

\* 물, 세라믹 등이 결합된 화합물을 고압 분사하여 발생한 가스층의 균열을 통해 채굴하는 기술

\*\* 지하 수km이하에 광범위하게 산포되어 있는 셰일암에서 추출되는 가스 자원으로 석유나 천연 가스액화물과 함께 시추되는 경우 주로 개발되고 있음